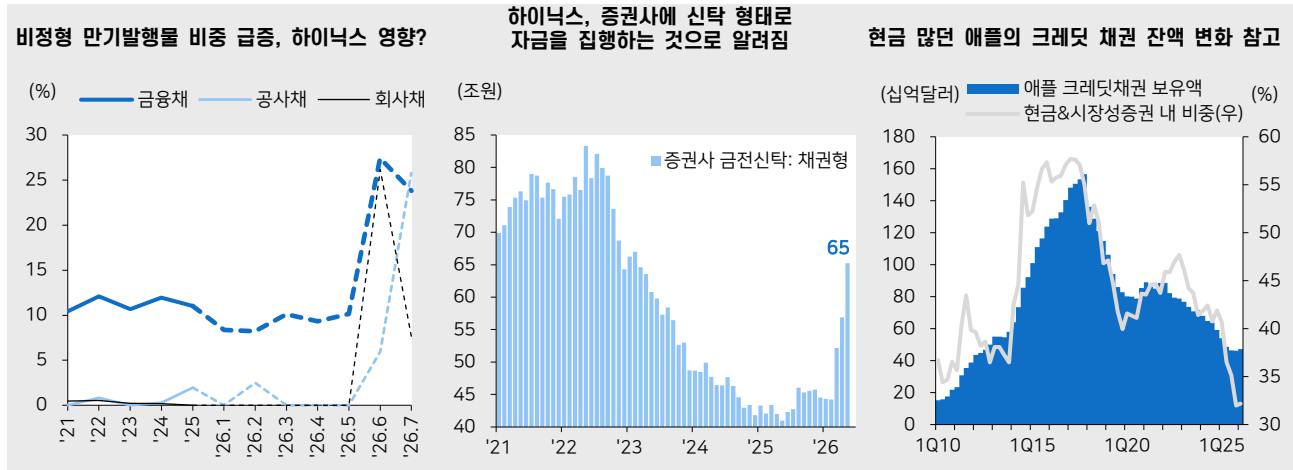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김영준 연구원

크레딧, 하이닉스, 그리고 애플



주: (좌) 공모발행 및 만기 1년 이상 기준이며 공사채는 MBS 제외 회사채는 ABS 제외, (우) 기업어음, 지방채, MBS 제외
 자료: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연합인포맥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하이닉스는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크레딧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보았다. 언론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재무 일정에 맞춰 현금 유출입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정형 만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전해지는데 이 점을 활용했다.

투자자의 운용 일정에 맞춰야 하는 만큼 유통시장에서 요구조건을 찾기보다는 발행단에서 비정형 만기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공모 발행시장 데이터를 통해 각 크레딧 섹터별로 비정형 만기 채권의 비중을 확인했고, 예년보다 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에서 하이닉스가 채권을 대거 매수했다는 시점과 일치한다.

현시점 절대규모로 환산하면 19~20조원이 도출된다. 과다 추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주요 크레딧 매수 주체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여기에 더해 하이닉스가 일부 정형 만기 채권의 입찰에 참여한다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채권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채권형 금전신탁에 법인 자금이 유입되는 배경으로 추측된다.

과거 애플이 크레딧 채권에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늘려 나갔던 초입 국면과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애플 역시 한때 여유자금을 크레딧 매입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았을 때는 절반 이상에 달했다. 애플처럼 하이닉스의 크레딧 비중(현금+단기금융+단기투자+장기투자자산)을 구하면 1분기 47%로 우상향 궤적을 그리고 있다. 60%로 가정하고 향후 현금 유입액 전망치에 대입했을 때 남은 하반기동안 하이닉스 자금집행 여력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언젠가 하이닉스의 주주환원이 본격화되면 매수 규모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 고민하기에는 이르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